

■ 민주당, 개헌론 유연 대응으로 전환 왜?

친이-친박 대립 틈타 정치지형 흔들기

내각제 등 권력구조개편 호남 정치적 미래 유리할 수도

여권 친이(친이명박) 주류 측에서 개헌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구에서 소수인 호남의 정치적 미래와 현재의 대선 구도 등을 흔들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 도입 등의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친이 개헌파는 최근 개헌 추진과 관련, 전략 수정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초 여당 개헌파는 171석에 이르는 압도적인 의석의 힘을 바탕으로 야권 설득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당내의 친박(친 박근혜)계가 아예

'개헌 논의 불용'으로 일관하자 오히려 민주당 등 야권의 협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잘 이뤄진다면 개헌의 물꼬가 터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권의 '개헌 전도사'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 의원들과 많이 접촉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도 '개헌에 찬성'이라고 밝힌 바 있고,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들도 야당 측과 교감하며 '외곽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그동안 개헌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민주당 내부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근 "한나라당 다수 의원이 우리가 피할 수 없

을 정도로 개헌을 요구한다면 국회 내의 특위 같은 기구 구성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여당이 통일된 안을 갖고 오면 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논의의 여지를 남겨뒀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권의 개헌 추진에 대해 정치상황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헌을 놓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친이와 친박계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현재의 대선 구도 등 정치 지형을 틈타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에서도 인구 등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호남 정치권의 미래를 고려해서라도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은 "호남의 인구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승자 독식 대결 구도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구도가 더 유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개헌 추진시 독일식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개헌파는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최대한 활용, 기본권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현안 개정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호응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친박계가 개헌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개헌 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공천개혁안 속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천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위(위원장 나경원 최고위원)는 지난 18일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공천을 위한 경선 선거구인 단 규모를 '선거구 유권자의 3% 이상'으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천특위는 선거구인 구성 방식과 비율에 대해서 최종 확정하지 못했다. 공천특위는 애초 대선 후보 선출 방식에 준해 대의원 20%·일반당원 30%·일반국민 30%·여론조사 20% 비율의 경선안을 내놓았으나, 이

날 '당원 50%·일반국민 50%'로 구성하자는 안이 제시된데 따른 것이다.

공천특위는 오는 22일 공천제도 개혁에 대한 트위터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24일 국회의원 및 각계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가진 뒤 최고위원회의에 최종 공천개혁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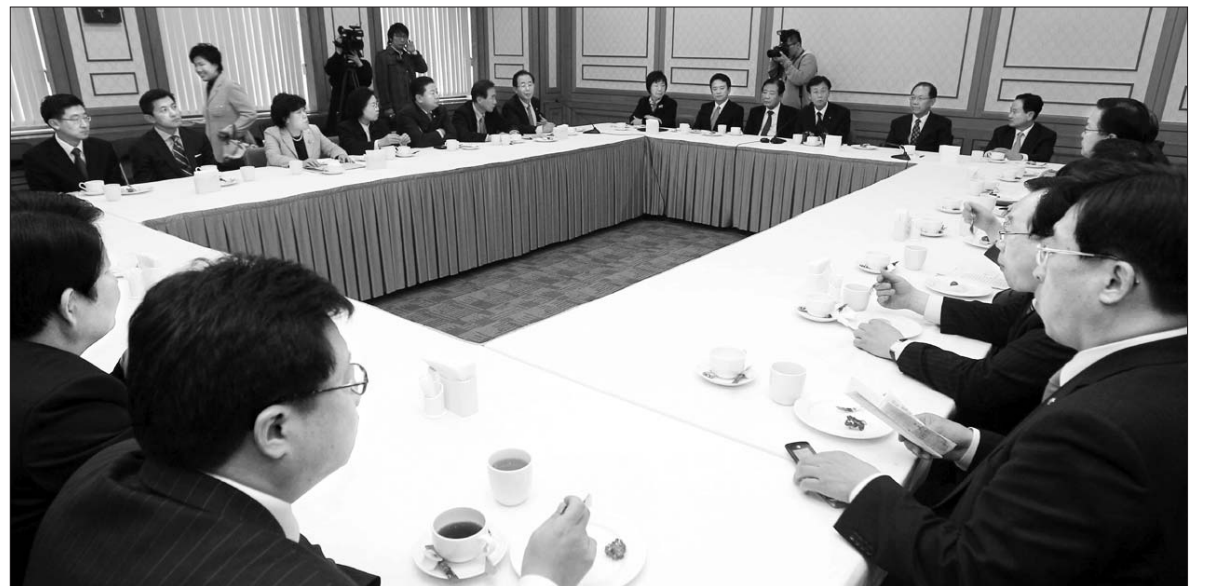
민주당 개혁특위도 공천개혁과 관련, 대선 후보를 모바일·현장 투표를 통한 '완전국민경선'으로 선출키로 의결을 모았다. 당적을 구분치 않고 투표를 신청한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혁특위는 또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예비후보자격심사위가 추천한 2~4배수

의 후보를 놓고 당원과 일반 국민이 50%씩 참여하는 선거구인단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채택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개혁특위 전정배 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문제와 관련, "국민참여경선이 원칙"이라면서도 "인위적인 물갈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미니멈 수준의 전략공천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공천에 대해 "과감하게 25~30세 청년, 정책당원에 배분하거나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지정운동 첫 모임

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소속 의원 20여명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처음으로 만나 국회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孫 '강철 체력'... 몸져누운 측근들

70여일째 장외투쟁 감기 한 번 안걸려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강철 체력'이 화제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70여일째 전국을 누비며 장외투쟁을 벌이는 강행군 속에서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은데 피곤한 기색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장외투쟁 중 하루에 4시간 정도 밖에 눈을 붙이지 못하고 그마저도 연말에는 천막, 울타리는 마을회관 등에서 숙박을 하면서도 특유의 건강 체질을 과시하고 있다.

이른 아침 동네목욕탕에서 잠시 피로를 풀고 주말에 틈틈이 산을 찾는 게 건강관리 비법이지만 '타고난 체력'이란 게 측근

들의 전언이다. 손 대표는 지난 2006년 경기도지사 퇴임 후 100일 동안 민심대장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강철 체력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강행군에 수행비서진들은 녹초가 되면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30대의 배상만 수행비서는 최근 피로 누적과 배탈로 탈진하는 바람에 이틀간 지방 숙소에서 몸져누웠고, 손 대표 차량 운전기사는 지난주 얼굴이 갑자기 부어올라 병원을 찾았다.

손 대표의 한 측근은 20일 "손 대표가 체력 하나는 타고난 것 같다. 우리끼리 '아프면 역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힘들긴 해도 앞으로 대선 때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이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차기 원내대표 물밑 경쟁 시동

민주, 강봉균·김부겸·유선호·김진표

한나라, 안경률·이병석·황우여 거론

오는 5월에 열릴 차기 여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각 당 예비주자들 간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

민주당의 경우 3선의 강봉균(호남)·김부겸(수도권)·유선호(호남), 재선의 김진표(수도권)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히고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인 김부겸 의원은 의원 확대를 통한 전국정당화와 야권 연합정치를 내걸며 설욕을 버리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 출신이라는 점이 유리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강봉균 의원은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의 정복적이다. 그는 중도층 흡수의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지난 해 경선에서 결선까지 오른 뒷심을 이번에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정부수석 출신으로 18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지낸 유선호 의원은 유연한 정

치력을 강조하며 관료 출신들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교육 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은 정책통으로서 총선·대선에서 지지층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개발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번에도 친이계와 친박계 간 경쟁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일원으로 총선 공천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때문이다. 다만, 아직 친박 진영에서는 이렇다 할 후보가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친이계에서는 3선의 안경률, 이병석 의원, 중립그룹에서는 4선의 황우여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안경률 의원은 친이계 모임 '함께 내일로', 이병석 의원은 당내 최대 의원 모임 '국민통합포럼'을 각각 대표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가 라운지

국회환경포럼 등 '우수 연구단체'



박주선 의원 김영진 의원 김성근 의원

국회는 20일 국회경제정책포럼(대표 정희수), 선진 사회연구포럼(대표 유정복),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대표 전현희·김상희) 등 3개 의원 연구모임을 '2010년도 최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했다.

또 '우수 연구단체'로는 ▲국회환경포럼(대표 박주선)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대표 김성근) ▲농어업 회생을 위한 의원모임(대표 이인기·김영진·강기갑) ▲아시아문화·경제포럼(대표 박진) 등 13개가 뽑혔다.



김정길 전 장관 초청 강연회

사단법인 지역발전정책연구원과 오일포럼은 20일 오후 2시 광주역 3층 회의실에서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초청, "2012년 대선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주제로 명사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날 강연회에서 김 전 장관은 다음 정부와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통일 지향적 정책, 지역주의 타파, 지역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전남대학교(6기)
개강일시	· 월요일 주간반: 2011. 2. 28(월) 09:00 · 아간반: 2011. 2. 28(월) 18:00
모집기간	2011. 1. 17(월)~3. 04(금)
수업기간	2011. 2. 28(월)~2011. 6. 16(목) (15주 90시간)
모집인원	· 기초반: 주·아간반 각 30명 · 심화반: 주·아간반 기중점생과 편입생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목요일) 주간반 09:00~12:30 · 아간반 18:00~21:30
수강료	₩360,000 · 광주은행: 074-107-004114(예금주: 전남대평생교육원)
수료후특전	·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사)한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회장 발급 ·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학문학원 및 학원개설 및 강사추천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530-3873~5 · 지도교수: 010-2611-1171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le.jnu.ac.kr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십·설득력 향상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2011년 3월 11일(금)~2011년 12월 16일(금): 1년과정
* 매주 금요일 주1회 19시~21시 교육
-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최고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교육기간 중 원우회 친목도모를 위한 포럼조직
-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각종선거출마예정자, 전문직 및 직능별중심자, 남원에서 두려움 없이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내성적인 성격), 기타 일반인, 직장인, 주부, 학생 등
-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라디오/TV 스피치 요령, 각종행사 사회 진행요령 및 축사, 주례사 등 각종 선거 후보자 연설문 낭독 요령, 발성 수련 운동 및 어휘력 개발 연습,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는 법, 성공면접 30초 안에 답변방법 등
- 교육요령: 실습 위주 교육(실습70%, 이론30%)
* 지도교수 직접 시범 실습 후 교육생 100% 완성까지 실습 위주 지도
-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2011년 1월 31일(월) ~ 3월 3일(목)
· 등록시간: (월) ~ (금) 10:00 ~ 17:00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과 교학과 (호심관 4층)
- 등록방법 (수강료: 1년 400,000원 - 분할납부: 학기당 200,000원)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 광주대 평교원)
- 수료 후 특전: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기업체 학원 단체 스피치 강사 및 각종행사 사회진행자 추천, 원우회 월 1회 모임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 670-2167, 2168 FAX (062) 670-2475
지도교수: 010-5692-9998

랜드스쿨 부동산 교육의 최강자!!

부동산 교육의 최강자!!
랜드스쿨 gin.landschool.com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남보다 한발 먼저
기본서와 단원별
문제풀이집으로 시작하십시오

공인중개사 무료특강!

전남고시학원

222-5105 전남여고 건너편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2기)	광주교육대학교(제3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2011. 3. 4(금) 09:10 · 오후반: 2011. 3. 4(금) 14:10 · 토요일 오전반: 2011. 3. 5(토) 09:10	· 목요일 오전반: 2011. 3. 10(목) 09:10 · 목요일 오후반: 2011. 3. 10(목) 14:10 · 토요일 오전반: 2011. 3. 12(토) 09:10 · 토요일 오후반: 2011. 3. 12(토) 14:10
모집기간	2011. 1. 18(화)~3. 5(토)	2011. 1. 18(화)~3. 12(토)
수업기간	2011. 3. 4(금)~2011. 8.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1. 3. 10(목)~2011. 8. 20(토) (6개월 24주 96시간)
모집인원	· 기초반: 금·토요일 각 25명	· 기초반: 목·토요일 각 25명
수업시간	·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매주 목·토요일 오전반: 09:0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40,000 · 광주은행: 148-107-307803(예금주: 광주여대)	₩340,000 · 우체국: 503557-01-005018(예금주: 광주교대)
수료후특전	· 1. 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이사장직위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학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부여(1급까지))	· 1. 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이사장직위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학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부여(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950-3582-4 · 지도교수: 011-614-4160 ·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 의: 062)520-4243 · 지도교수: 011-614-4160 ·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